

2023년 사순시기 시작

-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 십자가의 길은 주일미사 35분 전에 바치겠습니다. 신자 분들은 각 처를 바라보며 제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인도자만 중앙통로에서 이동하겠습니다.
- 금식과 금육: 재의 수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사순 판공

- 3월26일 사순 제5주일 미사 전/후, 4월2일 성지주일 미사 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 위한 합당한 준비로 고해성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평협회의

- 3월 19일 주일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현 임기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마지막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ACTS

-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절약한 몫은 Archbishops Call To Share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구장 주교님께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성탄에 들어온 구유예물 (\$639)과 2차 헌금 (\$262)을 모아 대교구로 보냈습니다. ACTS 봉투를 작성하신 분들은 집계하지 않고 같이 대교구로 보냈습니다. Call to Share에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Call to Share에 기부하신 분들은 https://archkck.org/donate/home/ 로 가셔서 온라인으로 해 주시고, Parish 선택란에 Korean Catholic Community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면담

- 지난 12월과 1월 구역미사 중 가정면담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면담 일정을 공지합니다. 면담 신청서에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 면담 가능일: 19일(주일)
- 면담 시간은 신청서에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외 평일을 원하는 분들은 본당신부와 개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티 꽃동네 후원 감사

- 정창용 타대우 수사신부님께서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주 장애아이를 집축복을 위해 후원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북미주 줌(ZOOM)으로 하는 연중 신앙특강

- 22023년 신앙 강좌 시리즈
- 중부 시간 7PM
- ID : 813 360 8420 -PC: 12345
- 모든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며 무료임,
- 당일 20분 전부터 시작하여 선착순 1,000명 접속가능

Table with 3 columns: 일시, 주제, 강사. Rows include 3월 26일 사순 특강 3 and 4월 16일 연중 특강 Becoming Love.

세금 보고를 위한 기부 영수증 발행

- 2022년 세금 보고를 위한 교무금/헌금 납입 내역서를 성당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재무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무금 및 미사지향

- 교무금 납부하신 가정은 다음 주일 후보 교무금란에 나옵니다.
- 교무금은 가능하면 Check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 교무금 및 미사지향을 위한 체크는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으로 써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기도

- 교구장 나우만 대주교님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하십니다. 교구민인 우리도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CRS Rice Bowl

- 라이스보울 가져가셔서 사순 시기 동안 매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성지주일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아진 기금은 대교구에서 가톨릭구제회 (Catholic Relief Service)로 보냅니다.

성가대 모집

- 거룩한 미사 전례에서 봉사할 반주자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 단장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성당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입니다.
- 열이 나거나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의사의 권유가 있으면 집에 머무르시며 건강 회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신자 재정보고

- 3월19일 주일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2023년 1월과 2월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4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입당, 봉헌, 성체, 파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조

Table with 4 columns: 금주, 차주. Rows for 김명은 안젤라 and 김시연 엘리사벳.

주보 담당: 박민 바실리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천주교 캔자스시티 대교구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 korean1481@gmail.com

주임신부 권진원 라우렌시오

(913) 305-6106

회장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총무 차상욱 펠릭스

(513) 335-3192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입당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라는 성경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 수난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합시다.

사진 묵상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일상에 많은 제약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던 때 자유로움이 오히려 좋았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뜨거운 눈물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저를 진정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국성순 마리아 | 가톨릭사진가회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생명의 말씀

여러분은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선택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부터 다윗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사이의 아들 중 엘리압이 잘생기고 키가 큰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막내인 다윗이 선택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사이도 설마 막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형들을 대신하여 양이나 지키고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이 치유 받은 소경과 바리사이들을 대비시킵니다. 즉, 소경은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까지 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육체의 눈은 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볼 견(見)자와 볼 관(觀)자가 있습니다. 볼 견(見)자는 단지 눈에 띄어서 의도와 의식 없이 단순히 시력을 통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 관(觀)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사물이나 현상을 고정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의지와 노력을 요구합

니다. 영어로 하면 'see'와 'look'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견' 하지 말고 '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무엘과 바리사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근본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호주머니의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봅니다. 사실 검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검색 결과를 주의 깊게보고 심사숙고하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진실인지 식별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여과 없이 진리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7)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아멘.

김상태 요한 신부 | 도미니코 수도회

말씀의 이삭

내 유통기한은?



저는 비정규직 프리랜서입니다. 주로 방송 구성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탈북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20대 후반, 긴 방황 끝에 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원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굶은일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인데도 '개편'이란 이름으로 언제든지 자리가 사라질 수 있었고, 어렵게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작가 구인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면접도 수없이 봤습니다. 늘 지긋지긋한 구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구직의 경지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통조림 유통기한을 본 순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9년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기간. 전 그 뚜껑에 찍힌 그 연도와 날짜에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공식품보다 짧고 불확실한 제 신세가 씁쓸했고 하나님은 왜 저를 안정적인 직장에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불평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고용 불안과 구직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청년성서모임에서 한 그룹원의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빵을 만들던 사람이 사진에 흥미를 느껴서 사진을 찍다가 사진사가 되자,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사진 찍는 제빵사인가, 빵을 굽는 사진사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것에 비길 수 있다는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직장을 다니는 신앙인'인가? 혹은 '신앙을 가진 직장인'인가? 말입니다. 전자라면 직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직장인으로 산다면 직장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일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일을 몰아주기도 하시면서 직장을 성전 삼으려는 그 유혹을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반드시 일하거나 벌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장이나 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내신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율타리 안에 있다면 제 유통기한은 통조림 따위에 비할 수 없이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빛으셨음을 믿고 언제나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김정은 로사 | 방송작가

로
를
이
브
는
성
경
그
전
의
정
신

공음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 레살 5.17-18

손태복 브루노
마산교구 장승포성당

구역 소식

■ 구역(반) 모임

- 정기적인 구역(반) 모임을 통해 구역(반)원간 목주기도나 말씀나누기 등으로 신앙적인 나눔과 더불어 서로의 안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구역 모임: 3/18(토) 6pm 조지연 마리아 가정
- 3구역 모임: 3/18(토) 4pm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가정 (11321w 131st St OP, KS, 66213)
- 4구역 모임: 3/31(금) 7pm 김대연 요셉 가정
- 4구역 소식: 차호섭 요셉의 어머니 우영월씨가 대장암 4기로 입원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Grandview에 사시는 이경남 마리아 자매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신자분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 3월 축일과 생일

- 3월 13일 정민경 크리스티나 축일, 박서연 에우세비아 생일, 박다연 제르트루다 생일
- 3월 16일 정민경 크리스티나 생일, 박서연 에우세비아 축일

- 3월 17일 박다연 제르트루다 축일
- 3월 19일 김대연 요셉 축일
- 3월 25일 김인자 글라라 생일

■ 교회재정

일시	주일헌금	교무금	미사예물
사순 제3주일	\$336	\$2,060	\$190

- 교무금: 차호섭(2), 이영민(3), 김정원(3), 김병철(3), 문석찬(2-3), 박민(3), 김인자(3-4), 홍순익(3)
- 미사참례: 45명

■ 미사지향

- 미사 봉헌을 1주 전에 미리 전례부에 전해주시면 주보에 미사 지향(생, 위령) 올려 드립니다.

생	
위령	이우석 프란치스코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김인자 글라라가 봉헌